

God's church, God's way - 1st Timothy 14 – Sermon Notes

Title: “1st Timothy 14”

Scripture: 1st Timothy 6:11-16

Date preached: October 12th 2025

Scripture: 1st Timothy 6:11-16

11 But you, O man of God, flee these things and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patience, gentleness. 12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lay hold on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also called and have confessed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13 I urge you in the sight of God who gives life to all things, and *before* Christ Jesus who witnessed the good confession before Pontius Pilate, 14 that you keep *this* commandment without spot, blameless until our Lord Jesus Christ’s appearing, 15 which He will manifest in His own time, *He who is* the blessed and only Potentate,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16 who alone has immortality, dwelling in unapproachable light, whom no man has seen or can see, to whom *be* honor and everlasting power. Amen.

11 오직 너 하나님의 □□□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 기억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라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Review

Last time we looked at verses 3 to 10 of chapter 6. Today we will continue on where we left off with the sixth and final chapter of First Timothy. But before we do, let's briefly review the key moments from last week's sermon.

As we know Timothy had been left in Ephesus as Paul's official representative. This gave him a considerable amount of power and authority, but it also placed a huge burden of responsibility on his shoulders. One of the most difficult challenges he faced concerned identifying and stopping false teachers. These false teachers were almost certainly senior in age to Timothy. They may also have received a better education and had probably established a loyal following. To call them out publicly would take bravery and courage. It would also require Timothy to be thorough in his research or investigations. He would need to be sure that what he claimed about these men was accurate.

In most cases false teachers are seldom brazen about what they are doing. We should remember that those presenting falsehoods do not believe themselves to be false teachers. No false teacher ever stands up and announces that they are going to teach a bunch of lies. Their hubris and pride leads them to believe that they are right, and that everyone else is wrong.

It is also true that they may be sneaky and deceptive. For obvious reasons they do not advertise what they are doing. They may season their lies with liberal doses of the truth. This can make spotting such men difficult. But despite these challenges Timothy was not to shirk his responsibilities. To help him in this Paul provides a useful checklist. As we said last time it's rather like a doctor’s diagnostic checklist. Doctors are able to check how various sickness or diseases manifest themselves. Comparing the list against the symptoms the patient presents helps the medical practitioner determine what's wrong. A high temperature, bloodshot eyes, a slight yellow tinge to the skin and a loss of weight. All these things may point to a particular disease or health problem.

In a very similar way Paul had provided Timothy with a checklist that he could use to judge the spiritual health of the teachers, and their teaching. Let's briefly consider what signs Paul was to look out for.

The first serious warning sign to look out for centred on what these men taught. Timothy was to examine the content, and the foundation of their teaching. For an elder who desires to properly honour and please God the foundation must be God's Word. The ideas and thoughts of men come a distant second to God's Word.

False teachers desire something more. God's Word for these people only goes so far, it's never quite enough. They want to add to, or take away from God's revelation in order to insert their own ideas or theories. This extreme pride shows as Paul tells us that they know nothing. Now clearly Paul is not suggesting that these men literally know nothing. They may be highly intelligent and articulate men. But in rejecting God's truth and the perfect message of the gospel they reveal their inability to "know" or understand what is truly important.

The next major red flag relates to the way these men conduct themselves. A good and godly pastor is humble, moderate, open, approachable and reasonable. They are not argumentative, prickly, difficult and aggressive. Raising an issue with the pastor should not be like going to war. This is because the true man of God is to desire to foster unity and love. They are to point people to Christ not repel them. The false teachers by contrast reveal themselves to be obsessed with trivialities. They find fault with everything and want to argue and dispute minutiae that really are not important.

Paul then goes on to speak about the motivation of false teacher. True men of God serve the church because they feel called to do so. Their reward comes from obeying God, and sharing the love of Christ with others. As we have noted in previous sermons this does not mean they should be expected to labour for nothing. But false teachers are drawn into the ministry for altogether different reasons. Simply put they are motivated by what they can get. This may be financial reward but there are other ways that a church leader may benefit. So now armed with these warnings Timothy is better equipped to spot men who have sneaked in and have no place in Christ's church.

The final issue we touched on last week regarded the attitude that Christians should have towards money, and wealth in general. Paul spoke very eloquently about how we are to be content with what God has given us. If we have our basic needs met then that ought to make us happy. People often think that money buys or assures you happiness and contentment. The equation people put forward is as follows. The more money I have, the happier I will be. We all know from history, and our own experiences that often this is not the case. The richest people are frequently the most miserable. Their wealth and possessions fail to bring them meaningful happiness and joy. They spend all their time trying to protect what they have and worrying about people who might try to take it from them. By contrast people who materially have little are often the happiest. This is because they have learned to appreciate the things in life that truly are valuable.

Paul goes on to warn us that the desire to be rich can be a dangerous and destructive thing. Greed can tempt us to behave in ways that are sinful and wicked. The most damaging possible effect of greed upon our lives is that it can draw us away from Christ. I am not speaking here of a loss of salvation. But rather that we can damage our relationship with God. This may result in His chastisement and in a loss of eternal rewards.

It is worthwhile us all taking the time to think deeply about our attitude towards money and wealth. Let us check our covetous hearts and learn to be content with whatever God in His grace has given us.

Today we will look at what Paul has to say regarding a Christian's good confession.

지난번에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인 6 장의 3-10 절까지 살펴보고, 오늘은 그 이후 구절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설교의 핵심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공식 대표로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상당한 권세와 권한을 주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그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찾고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을테고, 더 나은 교육을 받았고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려면 용기와 담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뻔뻔스러운 경우는 드뭅니다.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거짓을 가르치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활하고 기만적인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유로 그들은 자기들이 거짓을 가르친다고 광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에 많은 진실을 섞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디모데는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를 돕기 위해 유용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의사의 진단을 돕는 체크리스트와 비슷합니다. 의사는 다양한 질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보이는 증상과 목록을 비교하여 무슨 병인지 판단합니다. 고열, 충혈된 눈, 피부가 약간 노랗게 변하는 것, 체중 감소 등등 이러한 증상들을 보고 특정 질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사들의 영적 건강과 가르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징조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는 그들이 가르친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과 기초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려면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 보다 우선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 이상을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있으며,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을 집어 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하거나 뺍니다. 이러한 극도의 교만함은 바울이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드러납니다. 물론 그들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우 지적이고 언변이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완전한 메시지를 거부함으로써,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위험 신호는 그들의 행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훌륭한 경건한 목회자는 겸손하고 온건하며, 마음이 열려있고, 다가가기 쉽고, 이성적입니다. 그들은 논쟁적이거나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전쟁하러 가는 것 같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연합과 사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짓 교사들은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고,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논쟁하려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거짓 교사의 동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기에 교회를 섬깁니다. 그들의 보상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서 옵니다. 이전 설교에서 말했듯이, 물론 목회자들의 수고에 대해 정당한 사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사역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이끌립니다. 재정적인 보상일 수도 있지만, 교회 지도자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고를 통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몰래 들어오는 불청객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돈과 부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함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만 충족된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 □□ □□□ □□□ □□□ □□□□□□ . □□□□□□□□ □□□□ □□ □□□ □□□□□□ 더 행복할 것이다 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부와 소유물은 그들에게 의미 있는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염려하면서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위험하고 재앙적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 □□ □□□□ □□□□□□ 동하도록 유혹합니다. □□□□□□ □□□ □□ □□□ □□□ □□□ □□□□□□ □□□□ □□□ □□□□□□ . 저는 여기서 구원을 잃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장계를 부르고 영원한 상급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 돈과 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성찰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고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11 But you, O man of God, flee these things and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patience, gentleness.

As we saw in last week's study Paul informed us all about the selfish greed of the false teachers in Ephesus. They were not motivated either by a love of God, or by a love of His people. What drove them was the desire for personal gain. It's hard not to see this attitude reflected in some of the more notorious prosperity gospel preachers we see today.

I recently consulted “The Richest” website which has a page devoted to the world's wealthiest pastors. Here are a few jaw dropping examples. Prepare yourselves to be shocked. Pastor Pat Robertson who died in 2023 was said to have a fortune estimated at around \$100 million dollars. You would have imagined that he could have lived quite comfortably on far less. He might have invested his immense wealth in helping those in need. But apparently not.

Or what about Pastor T.D Jakes. He owns 14,000 square feet of land in Forth Worth, Texas. In addition to this he owns a \$5.5 million mansion seated on 17.8 acres of land. His property also comes equipped with a seven-car garage, housing a Rolls-Royce Phantom, a 1957 Ford Thunderbird convertible, and a 1960 Trans-Am. Estimates of Jakes' net worth vary widely. He has a fortune estimated at being between \$20 to \$40 million.

When I compare myself to these two pastors I think I must be doing something wrong. My mansion only has 5 bedrooms, my Rolls Royce is 10 years old and I've only got a paltry million dollars in the bank.

In the passage we studied last week Paul's emphasis was on false teachers. Timothy was to “look out” for these deceptive men who would reveal themselves via the symptoms we spoke about. But here the whole emphasis shifts. Now Timothy is advised to “look in.” He is to examine his own life so as to ensure that he does not fall prey to these same desires or temptations. Paul is both direct and personal in his tone here. We really get a sense of his deep care and love for Timothy. Let's look first at how Paul describes Timothy.

The false teachers due to of their fixation upon material things were most definitely “men of the world.” They were carnally, or fleshly minded.

Their hearts were drawn to the material, and not the spiritual. Timothy was different. He was not to

be categorised with the certain individuals who led the church astray.

Paul designates him here as being a “**man of God.**” It is a title used throughout the Bible to describe individuals who are called and empowered by God to fulfil specific roles and deliver His messages. That Timothy is given this title puts him in a rather exclusive club. You can amaze your friends later with the following piece of bible trivia.

The phrase "man of God" appears on a number of occasions in the Old Testament. It was used of Moses (Deuteronomy 33:1), Samuel (1 Samuel 9:6), Elijah (1 Kings 17:18) and Elisha (2 Kings 4:9) and other unnamed prophets (1 Kings 13). However, in the New Testament, only Timothy is referred to as a “man of God.” Only young Timothy is linked to this rich Old Testament tradition.

What marks out or designates a man as being a man of God? Paul will present us with a number of things that clearly mark out a man as being worthy of this title.

The first centres around what he runs or flees from. To flee from something implies that there is grave danger inherent in staying put. People flee from tsunamis, volcanoes, floods of fires for example. Staying put in such natural disasters means serious danger or death.

Paul recommends Timothy flee from the sins so prevalent in the false teachers who plagued the church. This includes not only their material greed, but also their love for false doctrines, myths and speculations. There is grave danger inherent in not taking appropriate action to avoid sinful temptations.

Actually the idea of fleeing here may be a little confusing. This is because we tend to associate the word with running quickly away from something. There are times when we are called upon to literally run away from sin. Think of Joseph in Egypt fleeing from the clutches of Potiphars wife (Gen 39:12). He wisely ran away from this wicked woman. But it may be more helpful to think of “fleeing” here to mean simply separating yourself from sin. Or to put space between you and a sinful situation. This is what it means here for Timothy. He is to separate himself (or take whatever means necessary) to keep from tempting situations that may cause him to fall into sin.

Now it's good to be “running away,” or separating yourself from sin but only as long as you are running toward holiness. If we do not have a destination or a direction in which to “flee” we are just running blindly around. So Paul advises Timothy to set his sights upon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patience** and **gentleness**. Instead of chasing after the material gains so beloved of the false teachers he was to look to godly virtues that were worth pursuing. Let's look at these virtues next.

Righteousness here refers to personal integrity. It means to do what is right in Gods sight. Timothy was to aim to be a man who could be trusted and relied upon. **Godliness** means living (behaving) in a way that God approves. **Faith** might be better translated as faithfulness. Timothy was to remain wedded to the gospel truth. **Love** refers to the self sacrificing form of love (agape). Timothy was to live with the thought of willingly and without reservation serving others. **Patience** means sticking to the task, or enduring even when times are hard. **Gentleness**, which embraces the idea of kindness and meekness might best be expressed as the idea of exhibiting power under control. Timothy was to use his authority with care and consideration. He must never resort to anger or the bullying of people.

By actively pursuing these good, godly virtues rather than selfish greed Timothy would indeed live up to his title of being a “man of God.” The same desires should motivate all of us. Let us abandon the desires we have for material wealth and gain and instead chase after virtues that please and honour the Lord.

Let us read on.

11 오직 너 하나님의 □□ **이것들을 파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지난주에 바울은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의 이기적인 탐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개인적인 이익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악

않으면 심각한 위험이 따릅니다.

□□□□ '피한다fleeing'는 개념은 다소 혼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한다'라는 단어가 무언기로부터 재빨리 도망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그대로 죄로부터 도망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창 39:12). 그는 이 악한 여자로부터 현명하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단순히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는 의미, 또는 죄악된 상황을 멀리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디모데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는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유혹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혹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피하는" 것 즉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좋지만,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 때만 해당됩니다. "도망갈" 때 목적지나 방향이 없다면 그저 맹목적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righteousness, 경건 godliness, 믿음faith, □□ love, 인내patience, 온유gentleness** 를 향해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물질적인 이익을 쫓는 대신,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경건한 덕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미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Righteousness 는 인격적인 온전함personal integrity 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경건함Godliness** 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사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Faith** 은 신실함faithfulness 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디모데는 복음 진리에 온전히 충실해야 했습니다. **□□ Love** 은 자기희생적인 형태의 사랑(아가페)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가까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인내Patience** 는 맡은 일을 끝까지 고수하고 어려운 시기에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Gentleness** 는 친절과 온유함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절제된 권세를 행사하는 것으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권위를 신중하고 사려 깊게 사용해야 합니다. 결코 분노하거나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탐욕이 아니라 이러한 선하고 경건한 미덕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와 이익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덕목을 추구합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2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lay hold on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also called and have confessed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Choosing to follow Christ and live to please Him puts you into conflict. If you desire an easy or comfortable life then far better to follow the ideas and thinking of Satan's world. Living for God puts us into warfare. The fight exists on several fronts. We must fight against our own fleshly desires, the schemes and plans of Satan and the resistance of a fallen world that loves sin (and hates Christ). When these fronts are combined we recognise that we have a serious fight on our hands. We must physically and spiritually prepare ourselves.

The Apostle Paul knew what it meant to be a soldier on the spiritual front lines. He served as a true warrior for Christ. No matter the odds against him, he always fought on.

On other occasions in his writings he likens Christian life (struggle) to be like a fight. In his first letter to the Corinthians he writes.

26 Therefore I run thus: not with uncertainty. Thus I fight: not as one who beats the air. (1 Cor 9:26)

The term, "one who beats the air" is a reference to shadow boxing. Boxers as they train for fights often shadow box. They move around the ring and throw punches but no real opponent exists. It's a useful training tool. It helps them stay fit, practice their moves and hone their skills but it has its

로서 섬겼습니다. 그에게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싸웠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투쟁)을 싸움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6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고전 9:26)

"허공을 치는 것"이라는 말은 새도 복싱shadow boxing 을 가리킵니다. 권투 선수들은 종종 새도 복싱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링 위에서 몸을 움직이며 펀치를 날리지만, 실제 상대가 없습니다. 유용한 훈련 방법입니다. 체력을 유지하고 자세를 연습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싸우는 상대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때리거나 KO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싸울 때 새도 복싱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짜를 상대로 싸웁니다. 눈에 보이는 상대가 존재하며, 바울은 타격을 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일은 심각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이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에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 □□ □□ □□□□ □□□□ □□□□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적대감을 직면하게 됩니다. 진리를 전하려는 열정이 강할수록 사탄이 더 공격할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훼손되고 조롱당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박해를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려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싸움은 진짜이고 치명적입니다. 방에서 "새도우 복싱"으로만 싸울 준비를 한다면, 실전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도 이런 현실을 깨닫고 아해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앞으로 닥칠 싸움을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할까요?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믿음faith** 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붙잡는 온전한 진리입니다. 믿음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분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하면 우리는 무능력해집니다. 진리의 어떤 부분이 희석되거나 약화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온전한 실재를 위해 싸우고 자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이 아닙니다. □□ 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논쟁거리가 되는 진리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적을 단번에 물리치고 그 이후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단 한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승리와 패배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에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영생eternal life** 을 추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뜻하는 것은 디모데가 영생의 실체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급을 받는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미래를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는 그 중요성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영생의 실체를 붙잡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과 생각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고백을 충실하게 지킬 것임을 보여줄 때였습니다. 이 공개적인 고백은 또한 그가 혼자가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고백을 한 그리스도 안의 다른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와 함께 싸웠습니다.
계속해 봅시다.

13 I urge you in the sight of God who gives life to all things, and *before* Christ Jesus who witnessed the good confession before Pontius Pilate,

We read here in verse 13 Paul's strongest exhortation to Timothy in this whole epistle. He urges him to keep the faith and run a good race. Timothy is to remember as he serves in God's army that his commanding officer is looking on. The world may not notice that you have backslidden, and that your passion has waned but this will not have escaped God's notice.

To encourage Timothy to persevere in all matters Paul highlights two sovereign persons who will ultimately hold him accountable. The first is God the Father. He gives life to all things. Or perhaps more appropriately, He holds all life within His hands. No matter what difficulties or troubles Timothy faces he trusts in a sovereign God. This means that he can speak the truth without undue fear. Timothy need not worry about how the world may react to his message. The world may be outraged and may seek to shut him up. But whether or not they will be successful in doing so depends on God. The Lord will sustain or protect His man until the work is done.

The second is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ur is the supreme example of one who held fast to his true confession. The Lord Jesus continued throughout His earthly ministry to proclaim the truth and remain faithful to the Word of God. This was because He fully trusted God the Father in all things. He knew that God would deliver Him in life or death. In particular here Paul draws our attention to the moment shortly before the crucifixion when the Lord Jesus stood before the Roman governor Pontius Pilate. It is an event that is covered across all four gospels.

Let me read from Matthew's gospel.

Now Jesus stood before the governor. And the governor asked Him, saying,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Jesus said to him, “*It is as you say.*” (Matt 27:11)

A similar account is also given to us in John's gospel (chapter 18). In both accounts Jesus did not hesitate or attempt to qualify His answer in any way. Our Lord did not pause to think of the least offensive response possible. He boldly and courageously proclaimed the truth. A truth He knew would see Him nailed to a cross. Timothy must look, as we all must to Jesus Christ for his example. If and when we are called upon to make our stand may we all we seek to emulate our Lord and saviour.

I recently listened to an interview with Craig Scott. He was a survivor from the Columbine High School shooting which took place in 1999.

As you may remember two 18 year old students Eric Harris and Dylan Klebold entered the school heavily armed and proceeded to murder 13 students and one teacher. Ten of these murders took place in the school library. Scott was hiding under a table in the library and witnessed first hand what transpired. He spoke very movingly about how the killers walked around and interacted with various students. It soon became clear to him that they were targeting particular people. At one point as they passed a table a girl hiding underneath said, “Oh God.” Bending down they pointed their guns at her and asked her if she believed in God. She begged repeatedly that they show mercy and spare her life. So they asked her again is she believed in God. Eventually she said that she did believe in God. Upon hearing her confession of faith they shot her in the face.

I wonder what we would have said had we been in that situation. Or in a situation in which confessing our faith might mean punishment, imprisonment or even death. Would we be as bold and courageous with our profession of faith? Or would we have given a weak and indecisive answer in the hopes that we might be spared? Until we are ever placed in such a situation we cannot answer

definitively. We are lucky here in South Korea that we do not face such a dilemma. But many believers around the world are not so fortunate. If they answer, “Yes, I am a Christian,” or “I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may face a jail cell or the barrel of a gun.

In our case what's the worst that might happen? Well, we might face being mocked or ridiculed for our faith. We might be laughed at for believing things in the bible. We then might cave in to such taunting in our desire not to be shamed or mocked. So it's a good question to consider? Are we ashamed of our faith? Do we not think it is robust enough to stand up to scrutiny? I certainly hope that this is not the case.

So Timothy is called upon to remain firm and complete the mission God assigned him. In particular he is urged to keep “this command.” To what exactly does this refer. Well let's read on and find out.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3 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고 그의 지휘관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서 뒷걸음질 치고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디모데가 끝까지 인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바울은 최종적으로 디모데를 판단하실 두 분의 주권자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십니다. 아니, 더 적절하게는 모든 생명을 그분의 손 안에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는 어떤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주권적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는 그가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는 세상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분노하여 그를 침묵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일이 끝날 때까지 그분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자신의 침된 고백을 굳게 지킨 자의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주 예수님은 지상 사역 내내 진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아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던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이 □□□□ □□ □□ □□□□ □□□□.

마태복음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7:11).

요한복음(18 장)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기록 모두에서 예수님은 주저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능한 한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을 대답을 찾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담담하고 용감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을 아시고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굳게 서도록 부름을 받을 때 우리 모두 우리의 주 구세주를 본받기를 바랍니다.

최근 크레이그 스콧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는 1999 년 콜럼비아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생존자입니다. 18 세 학생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레볼드는 중무장한 채 학교에 들어가 학생 13 명과 교사 1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중 10 건의 살인은 학교 도서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스콧은 도서관 테이블 밑에 숨어서 일어났던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살인범들이 돌아다니며 여러 학생들과 말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곧 그들이 특정 인물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테이블을 지나갈 때 그 밑에 숨어 있던 한 소녀가 “Oh God!”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충을 겨누며 하나님을 믿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거듭거듭 자비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 충을 쏘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처벌 투옥 심지어 죽음을 가져오는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용감하게 신앙고백을 했을까요? 아니면 살기를 바라며 약하고 타협하는 대답을 했을까요?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는 단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그런 곤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신자들은 다릅니다. 만약 그들이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감옥에 가거나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글썄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조롱 또는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믿는다고 해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끄러움이나 조롱을 당하고 싶지 않아 그런 비웃음에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믿음이 그런 시련을 견뎌낼 만큼 굳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는 굳건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울은 디모데에게 “이 명령 this command” 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이 명령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14 that you keep *this* commandment without spot, blameless until our Lord Jesus Christ’s appearing,

Paul urges Timothy to hold fast to the gospel truth and never compromise. There are a number of options proposed as to what exactly Paul means here by the term “this commandment.” He might have been referring to the “sound teaching” (doctrine) previously mentioned in verse 3.

Alternatively, he might mean Timothy's commission as a leader in Ephesus. The third and best option is that he is referring to the prior instruction to continue on his pursuit of a godly character.

As we have mentioned in previous sermons when it came to his disposition Timothy tended towards weakness and timidity. Paul does not want these weaker aspects of his character to take hold and damage his reputation. So Paul encourages him not to shrink from the battle or provide any reason for there to be a spot or blemish upon his record.

How true that is. A soldier may have an exemplary record of service. They may have demonstrated on many occasions great bravery and courage. But one moment of cowardice, weakness or poor judgement might undermine or cancel out his former record. It might cause others to now doubt this man and what he has done or can do. It may lead to the following question being asked. Can such a man be trusted after failing in this way?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the Christian warrior. Our effectiveness as Christian witnesses can be badly damaged or even destroyed by a foolish act or a badly judged word. It might seem unfair but one single spot or blemish can really be damaging.

Let us take a work situation as an example.

Hopefully your work colleagues know that you are a believer. This should be evidenced in the way you carry and conduct yourself. You are seen, I hope, as being a trustworthy person of integrity who always works hard and is careful in the way they speak to others. But imagine one day when you are particularly stressed or harassed you speak harshly or unfairly to someone. This is how this person will now see you. They may ignore all the times you were kind and considerate. You claim to be a Christian but the way you acted in this one extreme moment now defines you. Unfair I agree but a reality nonetheless.

Paul then speaks about how long we must maintain our pursuit of a godly character. It is until the return of our Lord and saviour. The “war,” and our part in it goes on until one of two things

happens. Either we die and go to be with the Lord or the Lord Jesus returns and the war comes to an end.

This means that until either of these two events occur we are to be loyal and faithful servants in Christ's army. So Paul expects Timothy as an elder in the church to remain beyond reproach or blameless until the return of Jesus. Such a task of course is incredibly difficult. This was why Timothy would have to devote himself to the Lord and seek in all ways to honour and obey Him.

Let us bring our study for today to a close with the following two verses.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진리를 굳게 붙잡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3 절에서 언급된 "바른 말"(교리)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에베소에서 지도자로서의 디모데의 사명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적절한 해석은 경건한 성품을 계속 추구하라는 이전의 권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모데는 성품이 약하고 소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러한 약한 기질이 뿌리를 박고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움에서 물러나거나 평판에 흠이 될 만한 어떤 이유도 만들지 말라고 권합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어떤 군인이 탁월한 복무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큰 용기와 담대함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비겁함, 약함, 또는 잘못된 판단은 그의 이전 평판을 훼손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 □□ □□, 혹은 할 수 있는 일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패한 사람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같은 원리가 크리스찬 전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효과적인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해 보일지 모르지만, 단 하나의 흠이 정말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직장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행동과 언행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함에 있어 신중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이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거칠고 부당하게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때부터 당신을 이렇게 볼 것입니다. 당신이 친절하고 사려 깊었던 모든 순간들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극단적인 순간에 했던 당신의 행동이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불공평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우리가 경건한 성품을 언제까지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구원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선한 "싸움"과 그 싸움에서 우리의 역할은 다음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죽어 주님과 함께 할 때, 또는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싸움이 끝날 때입니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장로인 디모데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주님께 헌신하고 모든 면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다음 두 구절을 보고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5 which He will manifest in His own time, *He who is the blessed and only Potentate,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16 who alone has immortality, dwelling in unapproachable light, whom no man has seen or can see, to whom be honor and everlasting power. Amen.*

The man of God understands that the Lord's plan in history culminates in the appearing of our Lord Jesus Christ. Paul here is most likely referring to the visible, glorious event when Christ comes to earth to judge and to set up His Kingdom. So it's not a reference to the rapture.

We are all eagerly awaiting the second coming of the Messiah. The timing surrounding this is greatly debated. There are clues and hints provided in scripture, but none of these, despite what some claim can really give us a definitive answer. It's a secret known only to God the Father. One that will only be revealed when He determines that the time is right. So until that time we are to remain in a stay of preparedness.

As Paul thinks about this glorious event to come his thoughts, quite rightly turn to praise. What we read in the remainder of verse 15 and in verse 16 is a doxology, a statement praising God. Paul may be quoting part of an existing doxology or a hymn of some kind. Whatever the case his words of truth carry great power and majesty. It's worth then taking a moment to unpack what he has to say.

God, he tells us is the blessed and only ruler. There is only one God which means, by definition that He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Certainly spiritual beings such as Satan and the demons have considerable power. But as created beings they at all times remain under God's authority. Next he tells us that God i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This reminds us, though we shouldn't need reminding that God has complete and total power over all things be they physical or spiritual. Human kings and lords may wield great power here on earth. But this is only because God allows it. He is fully able to take this power away if He chooses. Paul then tells us that God alone has immortality. The word immortality means not subject to death. All human beings are subject to death. Unless Jesus returns we will all die. But God is not subject to death. He may choose to give the gift of immortality to others, but only He has it inherent in His being. He has, and will always exist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There never was a time in which He was not. This means that He is life and the giver of life. It also means that He is incorruptible and unlike us is not subject to change or decay. He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Then Paul tells us a little about the gloriously bright realm in which God the Father exists.

It is the pure bright light of holiness that none of us sinful beings can approach. It is blinding in its power and perfection. Even if this light were to be removed we still would not be able to see Him. This is because He is spirit. This is not of course to suggest that God is unknowable. But rather to emphasise His otherness and holy perfection.

Because of all that He is our response to God must be evidenced in two responses. Firstly we must properly pay Him the honour and respect He is due. And secondly we are to submit and fall in obedience before His eternal dominion. To properly come before the Lord is to do so humbly. Confessing to Him our lack of true knowledge, self confidence and understanding. We are to come and simply prostrate ourselves before His awesome majesty. We are to acknowledge the following. You are everything, and I am nothing. I thank you that you not only noticed, but showed your love to a miserable and insignificant wretch like me. I thank you that you sent your son the Lord Jesus Christ to die for me. May your name be lifted up in praise forever and ever. Amen.

Paul shared all these truths with Timothy as a means of encouraging him. The fight may be hard but he was not to quit. The God in whose army he served was the sovereign ruler of all things. Timothy had no need to fear or be timid. He need not even fear death. God is immortal and His gift for those who fight the good fight is to share in this immortality. Timothy died many centuries ago. But he's not really dead. He's right now living in God's glorious presence. One day we will get to meet him.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bring our study of First Timothy to a close.

15 가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라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 보지 못하였고

다음 주에 디모데전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teaching.

오늘 가르침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Fight the good fight

Paul's encouragement to Timothy was to seek after the things of God and “fight the good fight.” It's a phrase that Christians often use. It encapsulates the Christian's call to engage in spiritual warfare. We are not reservists held back from the front lines. The true and devoted servant of Jesus Christ is right at the heart of the action. It also reminds us that we are to persevere and show dogged faithfulness in the pursuit of godliness and the advancement of the Gospel.

Paul knew all about the fight. His war journals are legendary. Few men in history endured what he did in his unwavering passion to share the gospel. Timothy was to take heart from Paul's words and prepare himself for the fight. Things may be difficult in Ephesus but God was on his side.

We too are called upon to fight the good fight. God has pressed each one of us into service and we are to play our part. We are to serve dutifully where we are placed. The task will vary from believer to believer. But all require us to be bold, brave and fully prepared. To ready ourselves for combat we must invest time and effort into the spiritual disciplines of bible reading, bible study, worship and prayer. This vital training equips us spiritually to get out onto the front lines and do what is necessary.

May we all prepare ourselves for the good fight. As followers of Christ we can have no greater sense of fulfilment than to know, as Paul did, that we have fully accomplished all that the Lord has called us to do.

1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고 권면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전선에서 물러난 예비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헌신적인 종인 우리는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한 경건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고 산실해야 함을 알깨워 줍니다.

바울은 이런 싸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싸움 기록은 전설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열정 때문에 바울 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말에서 용기를 얻고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편이셨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섬기도록 부르셨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맡겨진 곳에서 충실히 섬겨야 합니다. 그 임무는 믿는 자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임무든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감함, 그리고 민간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예배, 기도 와 같은 영적 훈련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훈련은 우리가 최전선에 나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시켜 줍니다.

우리 모두 선한 싸움을 위해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었음을 아는 것만큼 더 큰 성취감은 없습니다.

2 Run the good race

Back in middle school during the winter months we would often have to run cross country races during PE classes. This involved running around the school field, then out into the local park where

we slogged around the perimeter. Then after following a few public footpaths the course eventually came back into the school gate where the finishing line was located. I would imagine the course was about 5km in length. Probably around 15 percent of the course was on tarmacked footpaths.

The remaining 85 percent was on grass or mud. When the weather was wet, which was most of the time in the UK it was a hard run. We slid and slipped and occasionally fell over. On frosty winter mornings it was something we particularly dreaded.

I doubt British children still do such things today. As we ran we would often picture in our minds the route to come. Once I'm over the next hill it's just a kilometre to go. The cry in our minds was always the same. How much longer will I have to run.

The Christian race, or life is much the same. Our cry is always, how much longer will I have to run. How much longer will I need to pursue a good and godly life.

In today's passage Paul furnishes us with an answer. We run, or pursue a godly life until either we drop or Christ returns. Perhaps that's not what you want to hear. Maybe you were hoping to retire from "living for Christ" and having a well deserved sit down. Sorry, but the race never stops. We never stop serving and trying to live good godly lives. We never get a break from pursuing righteousness. So perhaps it's time to embrace that reality. To mentally and spiritually prepare yourself for the race ahead. One year, ten years, twenty more years of running only God knows. But just pause and think for a moment on what awaits the successful runner. Let me leave you with Paul's own word.

7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8 Finally, there is laid up for me the crown of righteousness, which the Lord, the righteous Judge, will give to me on that Day, and not to me only but also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2 Tim 4:7-8)

So let us all endeavour to run the good race and finish well.

2 좋은 경주를 하세요

중학교 시절 겨울철 체육 시간에 크로스컨트리 경주를 자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돌고 나서 동네 공원으로 나가 그 둘레를 힘겹게 달렸습니다. 그런 다음 몇 개의 공공 보행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결국 결승선이 있는 학교 정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코스는 약 5km 정도였고, 그 코스의 약 15%는 포장된 보행로였을 겁니다.

나머지 85%는 잔디나 진흙길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주 그렇듯이 날씨가 습하면 달리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끄러지기 쉬웠고, 특히 서리 내리는 겨울 아침에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요즘 영국 아이들은 그런 경주를 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달리면서 앞으로 달릴 길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다음 언덕을 넘으면 1km 밖에 안 남았어, 마음속에서는 항상 똑같이 오셨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달려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경주, 혹은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언제나 "얼마나 더 달려야 할까?"입니다. "얼마나 더 선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까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경건한 삶을 추구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서 물러나 편히 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경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삶과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는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를 추구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할 경주를 위해 정산적,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1년, 10년, 20년을 더 달려야 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성공적인 주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바다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7-8)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한 경주를 달려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합시다